

# 《사랑한다 우리말》 선정기 순우리말 뜻풀이집이자 토박이말 바른말본

누군가 “문자는 다 같이 쓰는 것이지만 문장에는 쓰는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했다. 11월 이 달의 책 후보로 오른 10권의 책을 살피면서 새삼 그 진리를 깨닫는다. 누구나 사용하는 문자이건만, 저자들은 개성 넘치는 문장을 만들어 독자들을 즐겁게 한다. 세상 모든 책들이 개성 넘치는 문장으로 《출판저널》, 아니 독자たちの 마음에 ‘이 달의 책’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은 지나친 과욕일까.

글\_장동석 기자

## 이 달의 책 선정위원

김광일 조선일보 문화부장 · 김연수 소설가  
나신하 KBS 문화복지팀 출판담당 기자 · 이이화 역사학자

《사랑한다 우리말》 장승욱 지음 | 하늘연못 | 468쪽 | 값 13,000원  
아름답고 뜻 깊은 우리말 뜻풀이 모음집인 《사랑한다 우리말》은 우리말을 잘 알고 잘하게 해주는 지식을 제공하는 책이다. 한국사람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고, 실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쓸모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토박이말 3,100여 개 어휘들의 세세한 뜻풀이와 그 쓰임새를 제시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지음 | 이순희 옮김 | 부키 | 383쪽 | 값 14,000원  
《사다리 걷어차기》 《왜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등을 통해 경제학과 경제현실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였던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책이다. 시작은 약간 우울하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변화시켜 개도국들의 경제 상황에 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낙관적 분위기로 끝을 맺는다.

《배움나무의 생각》 《뿌리깊은나무의 생각》 《샘이깊은물의 생각》  
한창기 지음 | 유구병 · 김형운 · 설호정 엮음 | 각권 350쪽 내외 | 각권 값 16,000원  
전통과 민속, 문화를 다룬 글들은 엮은 《샘이깊은물의 생각》, 문화 시평을 중심으로 엮은 《배움나무의 생각》, 언어에 대한 한창기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중심으로 엮은 《뿌리깊은나무의 생각》은 한국 현대성의 랜드마크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세 잡지들에 대한 오마주와 같다.

《출판저널》 11월호 이 달의 책 후보는 모두 10권. 장승욱의 《사랑한다 우리말》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영원한 잡지인 한창기의 《배움나무의 생각》 《뿌리깊은나무의 생각》 《샘이깊은물의 생각》, 재일학자 서경식의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강명관의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이승우의 소설 《그곳이 어디든》, 조용현의 《소설》, 홍인숙의 《누가 나의 슬픔을 놀아주라》 그리고 청소년 소설 《깨지기 쉬운 깨지지 않을》이 그 면면이다.

## 《사랑한다 우리말》과 《나쁜 사마리아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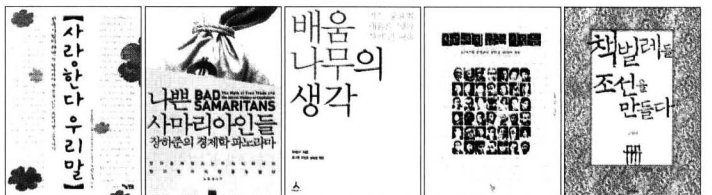
11월 이 달의 책으로 선정된 《사랑한다 우리말》에 대한 호평이 먼저 이어졌다. 이이화 선생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어 열풍에 휩싸여 있으며 교수의 강의 노트는 영어단어 투성이인데, 이는 언어생활에 극심한 혼란을 준다”고 질책하면서 “저자는 우리말을 구사하는 시인들과 글쟁이들을 통해서나 여느 사람들이 쓰는 말을 모아 그 풀이를 제시하였다”고 칭찬한다. 아울러 “이 용어들을 글쓰기에 원용하면 쉽고 구수한 문장이 될 것”이라고 용도까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잠시 《사랑한다 우리말》에 대한 문화일보의 평을 곁들여 보자. “저자가 지난 1997년부터 남북한의 수십 개 국어사전과 어휘·갈래사전들을 독파하며 채집하고 기록해온 ‘숨어 있는 순우리말 뜻풀이집’이자 ‘토박이말 바른말본’이다. 아름답고 뜻 깊은 우리말 우리글을 더 잘 알고, 더 잘 쓰고, 더 잘 펴뜨리자는 게 저자의 의도다.”

한국일보는 “러시아 출신 축구선수 신의손은 구리 신씨, 독일 출신의 방승인 이침은 독일 이씨, 국제 변호사 하일은 영도 하씨의 시조라는 등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서경식 지음 | 아목 옮김 | 돌베개 | 336쪽 | 값 13,000원  
파블로 네루다, 바실리 칸딘스키, 체 게바라, 안중근, 김구, 김지하, 박노해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49인의 인생을 농축해 놓은 책이다. 저자가 서문에도 밝혔듯이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가 무너지고 대다수가 무력감과 냉소주의 빠진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쓴 책이다.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강명관 지음 | 푸른역사 | 380쪽 | 값 15,000원  
《조선의 뒷골목 풍경》에서 역사책 밖으로 내쫓긴 ‘족보’ 없는 사람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복원했다면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는 책에 미친 책벌레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저자는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금속활자가 조선이 건국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 점과 그것도 세종시기에 막대한 양의 서적이 인쇄된 사실에 주목한다.



언론에 몸담은 사람답게 시속의 일을 시시콜콜히 들춰내 자칫 딱딱할 수도 있을 주제를 풀어가는 솜씨가 곳곳에서 번득인다"고 평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언론의 집중 조명과 함께 선정위원들에게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소설가 김연수 씨는 “재테크니 잘 사는 방법이니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들은 많지만, 우리가 경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또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은 드물다”면서 “이 책은 경제의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단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이 책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거나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이라는 중간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성 통념을 여지없이 깨부신다”면서 “오늘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반성하는 현실에서 이 저술은 대중을 향해 진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예술을 남달리 깊이 알고 사랑한 한창기

한편 한국 잡지사애 굵직한 획을 그었던, 작고한 한창기 선생의 글을 엮은 《뿌리깊은나무의 생각》 《샘이깊은물의 생각》 《배움나무의 생각》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이화 선생은 “한창기는 잡지를 통해 전통의 지혜를 전달한 인물로 구수한 우리 문장으로 옛 지혜를 전달하면서 관소리나 전통의 용구들을 만들어 공급하기도 했다. 상업적 필요로서가 아니라 전통문화의 지킴이 노릇을 한 것”이라고 회상하면서 “(이 책이)

전통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외침으로 들린다”고 평했다.

한겨레는 엮은이들의 말을 빌어 “한창기의 글들이 삼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흥미롭다. 눈앞의 이익을 좇는 우리 사회에 삼십 년 전 한문화인의 사유를 던지자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뿌리깊은나무〉 김형윤 전 편집장(현 김형윤편집회사 대표)의 한창기 선생 회고 글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예술을 남달리 깊이 알고 사랑한 한창기의 사유가 오롯이 담긴 글들을 엮었다”고 평했다. “우리 시대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올곧은 우리말로 풀어낸 글들을 따라가다 보면 고개를 자주 끄덕거리게 되리라”는 엮은이들의 말을 덧붙이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 나는 어찌 그리 읽기를 싫어했었고

연암 박지원은 명문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기실 그는 왕성한 독서가였다. 그런 그가 이런 글을 남겼다. 책을 넘쳐나되 읽을 것이 없다고 탓만 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부모의 바람은 자식이 글을 읽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글을 읽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도 글을 읽으면, 부모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 없다. 아이! 그런데 나는 어찌 그리 읽기를 싫어했었고.” **한글서체**

〈차마고도〉 KBS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제작팀 지음 | 예담 | 337쪽 | 값 15,800원

〈차마고도〉는 실크로드보다 200년 앞선 문명 교역로 '차마고도' 전구간을 세계 최초로 답사 촬영한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를 옮긴 책이다.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이 오고 갔던 문명·문화·경제 교역로 차마고도는 가장 높고, 가장 험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그 험난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날 수 있다.

〈그곳이 어디든〉 이승우 지음 | 현대문학 | 305쪽 | 값 9,800원

허무주의와 근본적인 회의주의로 마치 범죄를 추궁하는 심문관처럼 모순과 역설을 거쳐, 결국 삶을 미스터리로 만들어 버리는 이승우의 장편 소설. 산 주검들의 폐쇄적이고 모순적인 공간 "서리"를 통해 작가는 추방자 "유"가 한 번 더 소외당하며, 존재하지만 등기되지 않는 존재 즉, 유명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그린다.

〈조용헌의 소설〉(전2권) 조용헌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1권 284, 2권 276쪽 | 각권 값 10,000원

조용헌이 전기수가 되어 전국 8도를 누비며 담아낸 인생살이에 대한 참된 성찰의 경지를 들려준다. 저자는 2천 5백년 전,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문자로 적어내던 '소설가'의 역사를 들어 이 책이야말로 그 정통 소설의 본령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나의 슬픔을 놓아주랴》 흥인숙 지음 | 서해문집 | 270쪽 | 값 10,900원

남성 중심 평가의 그늘에 가려 예술적 재능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예술가들의 삶을 조명한다. 황진이, 김명순 등 문학, 미술, 무용, 음악 예술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활동했던 여성들의 면면을 살핀다.

《까지기 쉬운 까지지 않을》 김혜진 외 6인 | 바람의아이들 | 216쪽 | 값 8,000원

청소년 소설 일곱 편을 엮은 단편집. 수시 합격 된 고3 학생이 품고 있는 생각과 그가 행하는 나머지 확장생활,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평범한 현재의 고등학생이 나오는가 하면 전교조 합법화 운동에 나서는 80년대 운동권 고등학생의 모습 등 내외적 갈등과 변화 속에서 성장통을 겪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각 편마다 잘 드러나 있다.

